

일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진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Kent
파견대학	Kent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15.8.31-16.5.13
귀국여부	6월 8일 귀국 예정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KSU는 Ohio State에 위치한 학교로, Cleveland Int Airport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곳 입니다. 학교는 공원 같은 분위기로 꾸며져 있고, 다람쥐가 많이 돌아다녀 black squirrel이 학교의 마스코트 일 정도입니다. 각종 이벤트를 많이 열어서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KSU의 장점입니다.</p> <p>약 8개 정도의 기숙사 건물과 단과대별 건물이 있고, 체육관의 개념인 Rec center에서는 농구, 스쿼시, 수영, 암벽등반 등 여러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1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서실 같은 분위기를 가진 층이 있는가 하면 각종 모임장소로도 쓰일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층도 있습니다. KIVA에서는 토요일마다 영화 상영을 하고, 3주에 한번 꼴로 초청 강연을 엽니다. Refugee, leadership, communication, 또는 poem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p>
	<p>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KSU같은 경우 매주 온라인 퀴즈 과제가 있고, 중간고사 3개에 기말 1개, 프레젠테이션, 페이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이 중간, 기말, 프로젝트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면 미국은 할 일이 자잘자잘하게 많아서 항상 공부를 시켜요.</p> <p>♦가을 학기/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troduction to Human communication, Yoga, Women's weight training, Ice skating 수강.</p> <p>: 미시경제학과 human communication 클래스는 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introduction to Human communication 클래스는 주위 친구들한테도 많이 추천한 수업입니다. Informative, persuasive, group speech 이렇게 세 번 발표를 해야 하고, 매주 온라인 퀴즈, 그리고 온라인 중간기말 시험에, 수업 전까지 해가야 하는 과제 등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특성상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수업을</p>

	<p>통해서 친구도 많이 사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p> <p>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과목은 개인적으로 비추천입니다.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Article이 08,09년도에 나온 오래된 자료이고, 업데이트를 안 해서 가끔씩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한 학기에 수업이 다섯 번 정도 휴강되기도 했습니다. (차가 고장났다, 갑자기 아프다 등)</p> <p>◆봄학기/ Game Theory, Business Finance, Financial Accounting, Seven Ideas that shook the Universe, General Psychology 수강</p> <p>: 개인적으로 Game Theory과목이 정말 흥미있었고, 교수님께서도 무척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때때로는 computer lab에 가서 수업시간에 배운 게임 이론 내용을 사용해보기도 합니다. 중간 기말 각 1번씩 시험이 진행되며 chapter가 끝날 때마다 해당 챕터의 내용의 문제를 풀어 과제로 제출해야 하며, 모두 배우고 나서는 마지막에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시로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합니다.</p> <p>Seven Ideas that shook the universe는 physics 과목으로 기초 물리학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정도의 내용이라 예전에 배웠던 부분을 떠올리며 workbook을 공부하면 시험준비에 어려움은 없으나 강의실에 비해 듣는 학생이 많아(core course중에 하나이기 때문) 교수님의 말이 잘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만약 좀 더 interactive한 수업을 원한다면 다른 수업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p> <p>General Psychology 수업은 Joynes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유쾌하게 강의를 이끌어나가십니다. 이 강의도 core course라 듣는 학생이 많은데 수업 중에 웅성거림 없이 정말 모두가 교수님께 집중하게 될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번 챕터 3개 정도씩 온라인 퀴즈를 보고, 중간고사 3번에 기말 1번을 봅니다. 그리고 research program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제가 가는 시기에 순천향대를 담당하는 사람은 Nick(Nickolas)였습니다. 가기 전에 보험이나 수업 등과 관련해서 문의 메일을 보내면 친절하게 차근차근 알려주었고, 학교에 도착해서는 처음에 월마트에 데려가주는 등 인터네셔널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p> <p>학교 측에서는 Van campen이라고 international student에 관련된 행정처리를 하는 곳이 있는데, office hour에 맞춰 가면 컴퓨터로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학기가 시작하기 2-3일 전에 Picnic, Orientation 등이 열립니다. 이 때 아주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호스트 패밀리, KSIM 등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오하이오 근처에 큰 호수가 있어서 기후 변화가 심한 편입니다. 일주일 사이에도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화요일은 여름같이 더웠다가 금요일엔 코트를 꺼내 입었을 때도 있을 정도로 1주일 사이에도 더위와 추위가 반복됩니다.</p> <p>보통은 4월까지도 춥고 눈이 와서 휴강도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있던 시기에는 유독 겨울이 따뜻해서 따로 날씨 때문에 휴강되거나 학교를 다니는 데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p>
안전	<p>미국은 총기 소지를 허용해서인지 Cleveland쪽이 유독 범죄율이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총기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제가 있던 두 학기 사이에도 Off campus나 downtown 쪽에서 실제로 총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경우, KSU에서는 학생들에게 문자나 메일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조사 중에 있다는 소식을 학생들에게 일괄 전달합니다. 또한 순천향대에도 있는 것처럼 가로등에 버튼만 누르면 security와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첫 학기에는 Prentice Hall에 살다가 두 번째 학기에는 Eastway의 Clark Hall로 옮겼습니다. 두 기숙사 모두 신입생들이 이용하는 기숙사라서 알코올 반입이 금지됩니다.</p> <p>1) Prentice Hall: 3층으로 된 건물이며, 건물 안에 market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숙사에 경영학과 학생들의 community가 있다는 소식에 선택했었습니다. 회계 과목 tutoring이나 math tutoring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신입생 위주여서 저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student center, Rec center 등 학교 시설과 거리가 멀어 두 번째 학기에는 Clark hall로 옮겼습니다.</p> <p>2) Clark Hall: 이 기숙사는 International student가 많이 이용하는 기숙사로 다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Clark 외 에도 Allyn 등 총 네 개의 기숙사가 연결 된 형태이며, 1층에 Market 2층에는 restaurant이 있습니다. Student center, library, Rec center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p> <p>➤ 두 기숙사의 공통점으로는 층마다 RA가 있고, 저녁 시간이 되면 Security라고 적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복도를 순찰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시(심지어 풀이 필요하다 등의 사소한 것 포함) RA에게 말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p> <p>➤ RA와 Security외 에도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해주는 Hall Director가 따로 있습니다. 룸메이트와 문제가 있거나 기숙사를</p>

	<p>옳고 싶다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담을 진행하여 행정 처리가 이루어집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저는 meal plan을 신청하지는 않고, KSU 학생증에 Flash cash를 충전하여 밥을 사먹었습니다. 한 끼를 먹을 때, 보통 12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음식 퀄리티가 가격에 비해 부족해서 두 번째 학기부터는 웬만하면 밥을 해먹었습니다.</p> <p>Prentice Hall이나 Clark Hall 1층에는 키친이 있으니, 만약 KSU로 가시게 되었다면 냄비와 팬, 조리도구를 어느 정도 갖추는걸 추천합니다. (분명히 더 이상 못 먹겠다.. 하는 날이 올 거예요..)</p>
교통	<p>학교 안에 순환 버스와 시내버스가 같이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정시에 항상 오는 게 아니라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보통은 가까운 영화관을 가거나 마트를 갈 때 친구 차를 얻어타거나 Uber taxi를 이용합니다.(Lyft taxi도 좋아요-Uber와 Lyft 앱을 설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p>한국>미국:98만원 (인천-디트로이트-클리브랜드) 미국>한국: 480불 (시애틀-인천)</p>	
Fees	<p>학기 마다, Art fee: 15불 International student activity fee: 20불</p>	<p>Art fee와 international student activity fee가 있어요. 학교 ISSS부서에서 한 달에 한두번씩 field trip같은 것을 진행하는데, 이때 International student 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습니다.</p>

보험료	삼성화재 여행자보험 : 80만원 KSU 보험 : 2000불	삼성화재에서 여행자 보험도 들고, 동시에 KSU에서 권하는 보험도 들었습니다. KSU에서 추천하는 보험은 의무이고, 가을학기(여름학기 무조건 포함)를 합쳐 200불 입니다.
숙소	한 학기: 3250불 (2학기 동일)	
식비	한 달에 450불 정도	
교통비	한 달에 50불 정도(택시 이용)	
책값	책 마다 상이하지만 70불~150불	만약 4 th edition을 필요로 하면, 3 rd edition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책 내용에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학교 주위에 중고책을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싸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Chipotle 맞은편, Starbucks 옆 건물에 위치) 학교 내의 bookstore는 비쌉니다..
기타1		
기타2		
기타3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1. 통신사 : 저는 미국에 와서 개통한 케이스입니다. 친구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미리 미국 번호를 받고 유심칩을 갈아끼워 온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잘 구입하면 한 달에 40불 정도의 요금에, 20개 정도의 한국 번호까지는 해외 추가요금 없이 통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기념품 : 마지막에 외국인 친구들과 헤어질 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어떤 물건을 줄지 생각해보고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젓가락을 준비한 친구도 있었고, 때밀이, 한글이 적힌 시계 등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은 조그마한 테디베어 인형을 준비해갔어요.
3. 한국 음식 : H-mart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차있는 친구들과 함께 한인 마트를 가서 사도 됩니다. 챙겨올 게 많으시다면 음식을 빼는걸 추천합니다! (ACME에서 불고기 소스, 월마트에서는 김치도 팔아요~)
4. 영어공부: 아는 단어만 귀에 들리고, 익숙한 표현만 입 밖으로 나옵니다. 출국 전까지 생활영어 많이 접하고 공부하고 오시는걸 추천해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미국에서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아예 없거나 둘로 나뉘지는 편입니다. From Korea라고 했을 때 어떤 part인지 물어보고 south라고 하면 그게 자유로운 나라인지 물어봐요. 이렇게 North 와 South Korea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여럿 봤어요. 봄학기 때, KSIM(친목 동아리)과 KSU에서 2주에 한번 진행하는 cultural café에서 한국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식사, 예절(인사, 존댓말), 전통의상, 맛집투어, 놀이문화, 배달문화) 등을 소개했을 놀란 친구들도 많았어요. 반면, k-pop이나 k-drama를 통해 저보다 한국 연예인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친구들을 보면, 문을 열고 다음사람을 위해 잡아준다던가,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것 등 배려심이 깊은 편이고, 다양성에 대해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카츄 머리띠를 한 친구나 고스족 분장을 한 친구들을 봤을 때, 여긴 학교인데 왜 굳이 저렇게 입고 온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 다른 친구들은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친구들은 지나가며 "I like your hairband"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 다양성에 대해 관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편협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사실 두 학기 동안의 시간 동안 느낀 것도 많고 변화한 것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 다녀오니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에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저 또한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교환학생으로 나가는 분들께서도 경험하시리라 믿어요. 혹시라도 교환학생을 갈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꼭 도전해보시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영어 실력을 늘려오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가기 전까지 준비 많이 하셔서 즐기고 오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추천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Homecoming day



Halloween day



Thanksgiving day



S'more night



Life-size game night



부활절 달걀 꾸미기